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장)*

국제원자재시장은 7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원자재지수 역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원유가격이 반등할 여지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원자재지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OPEC의 원유 감산 합의 실패와 수요증가세 둔화로 인해 원유시장의 초과 공급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과 셰일산업 성장 혜택을 입고 있는 미국 사이의 에너지시장 패권 다툼 양상이 주목된다. 곡물시장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11월 미국 에탄올시장은 10월에 이어 에탄올 생산량 감소와 철도물류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4년 11월 평균 원자재지수는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CRB지수(CRB Index)는 267.2를 기록하여 전월 274.3에 비해 2.6%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5% 하락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521.9로서 전월 548.8보다 4.9% 하락, 전년 동기보다는 15.1% 하락했다.

* hipark@gtck.re.kr, 02-3393-3921.

표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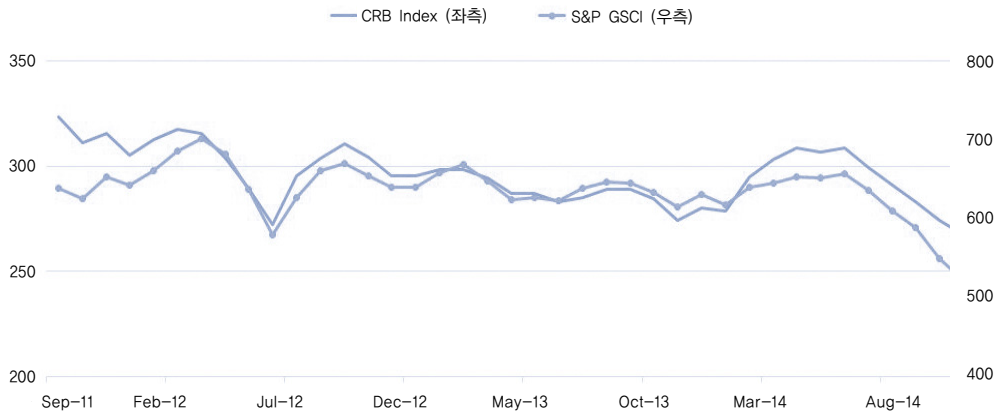
구분	2013.11	2014.10	2014.1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274.0	274.3	267.2	-2.5	-2.6
S&P GSCI	614.9	548.8	521.9	-15.1	-4.9

주: 변화율은 2014년 11월 평균지수의 전년동기(2013년 11월)와 전월(2014년 10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국제 원자재시장은 2014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의 하락률은 10월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원자재시장 주변 환경은 여전히 비우호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기 직전인 6월의 지수 수준은 CRB Index는 308.6, S&P GSCI는 657.6이었는데, 불과 5개월만에 두 원자재지수는 각각 13.4%, 20.6% 하락한 것이다. 이로서 그동안 원자재지수 지지대로 제시되었던 CRB Index 270선, S&P GSCI 620선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에너지품목의 비중이 높은 S&P GSCI가 CRB Index보다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 원유가격의 하락추세가 언제 멈출지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서 원자재지수의 약세도 아직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1월 원자재시장은 원유시장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OPEC의 원유 생산 감축이 실패하자 초과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가격이 강하게 하락했다. 반면 10월에 반등세를 보였던 곡물시장은 11월에도 강세를 지속했다. 곡물가격은 5~6개월 연속 하락한 후에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북반구의 신곡출하가 마무리되면서 수급안정 상황이 가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철금속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뚜렷한 방향을 보이기보다는 미국 달러가치, 중국, 유럽 등 지역의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원자재시장은 원유시장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OPEC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4년 11월의 에너지시장은 석유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천연가스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WTI원유의 11월 가격은 75.8달러/배럴로서 10월에 비해 10.1% 하락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9.3%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11월 가격이 79.6달러/배럴로서 전월의 88.1달러/배럴에 비해 9.6%, 전년보다 26.2% 낮은 상태를 나타냈다. WTI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80달러를 하향 돌파하는 강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4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11월 천연가스 가격은 4.24달러/백만Btu로서 전월보다 11.6% 상승했으며, 1년 전보다는 16.2%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1	2014.10	2014.1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93.9	84.3	75.8	-19.3	-10.1
브렌트유	107.9	88.1	79.6	-26.2	-9.6
천연가스	3.65	3.80	4.24	16.2	11.6

주: WTI원유(CME선물), 브렌트유(ICE선물)는 달러/배럴, 천연가스(CME선물)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4년 11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1월)와 전월(2014년 10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11월에도 OPEC의 원유생산량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생산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공급이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1월 27일에 개최된 OPEC 회의에서 향후 6개월의 생산쿼터를 현재의 3,000만배럴/일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OPEC의 2014년 1~10월까지의 실제 원유생산량은 3,032만배럴/일로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원유생산은 2014년 11월 말 기준 908만배럴/일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원유생산은 전년에 비해 96만배럴/일(11.8%)이 증가하여 원유공급증가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원유공급은 원활한 반면 글로벌 원유수요에 대한 전망은 2014년 6월 이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11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2014년 원유수요는 6월 전망보다 65만배럴/일 하향 조정되었으며, 미국에너지청(EIA)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5개월 연속 하향 발표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미국의 원유수요는 견고한 상황이지만 중국, 일본, 유럽의 원유수요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2014년 3분기 GDP성장률은 3.9%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은 7.3%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 달러화 강세는 원유가격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2014년 11월 말 87.6으로 7월 이후 9.8% 상승했다. 미국의 견조한 경기지표와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 및 유럽 경기부진 지속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가하락으로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부진으로 인한 유가하락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등 경제에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의 유가하락은 공급요인보다는 경기침체 및 수요부진에 기인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둔화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저유가로 인한 부작용을 회피하고 혜택을 경제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수요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유가하락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 가계 소비지출 확대, 물가안정, 무역수지 개선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한국의 과거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유가가 10% 하락 시 6분기 이후에 누적적으로 GDP가 0.5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근영(2011.12),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Money & Finance, Vol.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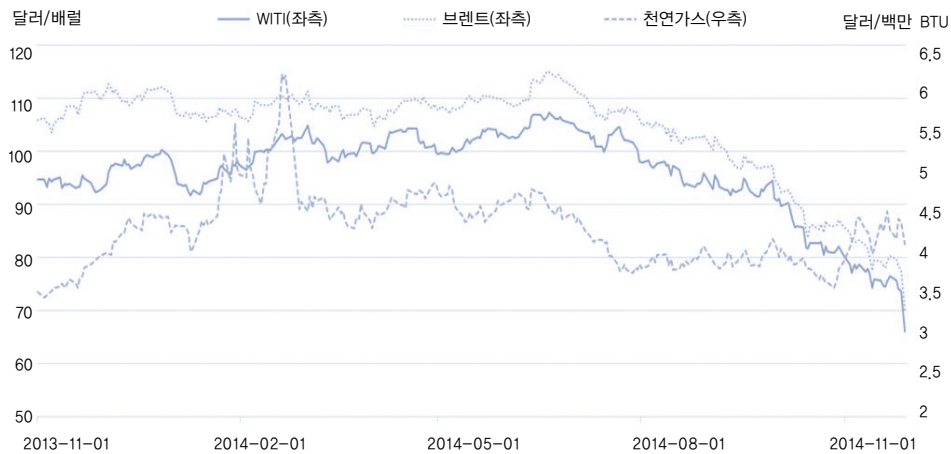
저유가는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이며, 산업에 대한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원유수입량은 연간 9억2,980만배럴(2011년~2013년 평균)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1,020억달러(평균유가 110달러/배럴 기준)에 달한다. 이는 한국 연간 총 수입액 5,200억달러의 19.6%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유가가 70달러를 유지하면 연간 372억달러의 수입액이 절감되는데 이는 한국의 1년 무역수지 흑자 344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유가하락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큰 것이다. 하지만 유가하락은 석유화학 및 정유업의 마진악화를 초래하여 수출액 감소라는 부정적 요인도 있는 만큼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유가가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되어 내수부진, 투자침체에 빠질 리스크가 있다. 원유수출 비중이 높은 중동지역과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캐나다, 러시아 등 신흥 산유국의 통화가치 및 주가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노르웨이 크로네는 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캐나다 달러, 러시아 루블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산유국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투자가 위축되면 산유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상품, 설비 및 서비스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원유생산국에 대한 수출량은 원유가격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유가하락은 한국의 수출감소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중동지역 수출은 2014년 1~10월까지 285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6% 감소했다. 셋째 국제원유시장의 패권다툼으로 인한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미국 셰일산업의 성장으로 미국과 OPEC 사이의 국제에너지시장 주도권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은 유가하락을 유도하여 미국 셰일산업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셰일오일 생산기술 발달로 생산비가 낮아지면서 셰일산업에 대한 타격은 불투명하다. 오히려 OPEC 내 재정이 취약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 갈등이 심화되어 OPEC의 균열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한 러시아의 재정위기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파급될 소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감소 및 원유교역구조 변동 리스크를 주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효율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원천기술 선점 경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원유소비지출이 줄어든 만큼 잉여자본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즉 지금의 유가약세 시대에 실력을 키워 향후 유가강세 시대를 대비해야 하

는 것이다. 중동 중심의 한국 원유수입구조는 국제에너지시장 패권 움직임에 따른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중동지역에서의 원유수입은 전체 원유수입의 86.1%를 차지하므로 중동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2014년 11월 곡물시장은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월의 옥수수가격은 373.2센트/부셸로 전월보다 6.8% 상승, 1년 전에 비해서는 11.8% 하락했다. 대두는 1,032.4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서는 7.0% 상승, 전년 보다는 20.4% 하락했다. 11월의 생육우는 168.9센트/파운드로 전월에 비해 1.4%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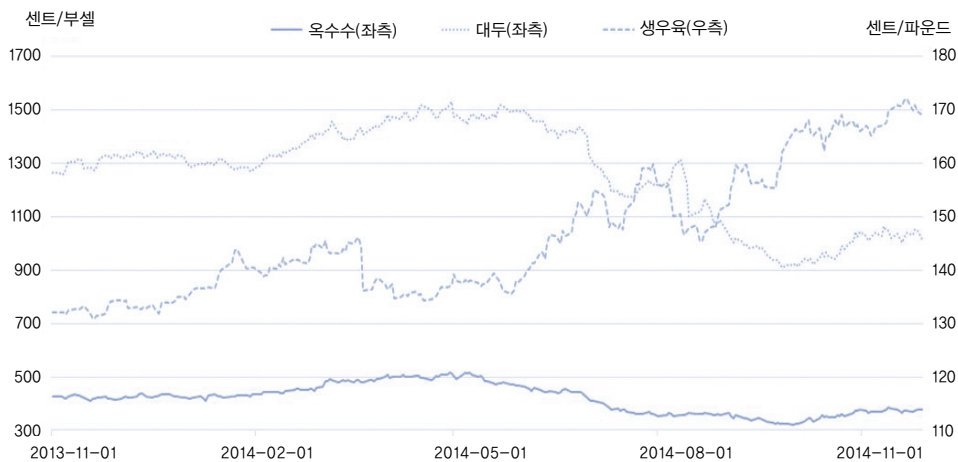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1	2014.10	2014.1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423.0	349.4	373.2	-11.8	6.8
대두	1,296.6	964.6	1,032.4	-20.4	7.0
생육우	132.4	166.5	168.9	27.6	1.4

주: 옥수수(CME선물), 대두(CME선물)는 센트/부셸, 생육우(CME선물)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4년 11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1월)와 전월(2014년 10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11월의 비철금속시장은 10월의 하락세에서 벗어났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구리가격은 6,580달러/톤을 기록하여 10월에 비해 0.9% 하락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7.4% 하락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2,061달러/톤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3.6% 상승했다. 금 11월 가격은 1,176달러/온스로서 10월보다 3.9%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7.7%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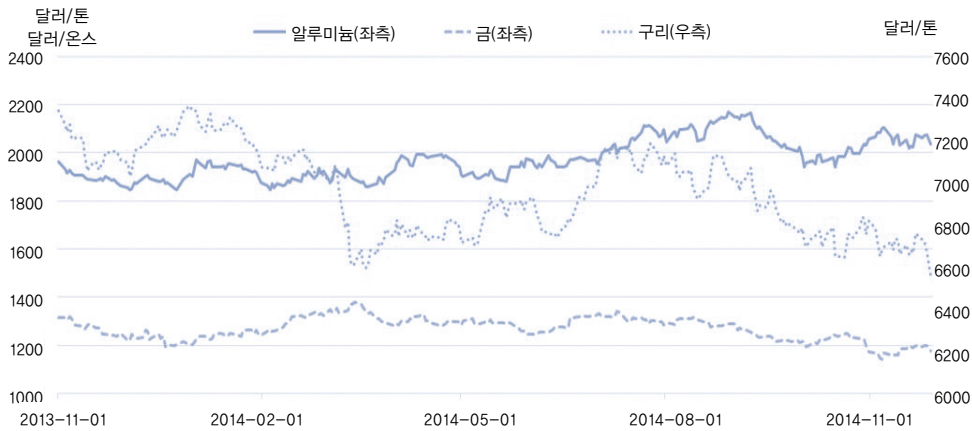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11	2014.10	2014.11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899	1,990	2,061	8.5	3.6
구리	7,105	6,640	6,580	-7.4	-0.9
금	1,275	1,224	1,176	-7.7	-3.9

주: 알루미늄(LME선물), 구리(LME선물)는 달러/톤, 금(CME선물)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4년 11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1월)와 전월(2014년 10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반등세 지속

2014년 11월 미국 에탄올시장은 10월의 반등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2014년 11월 마지막 주 가격은 208.5센트/갤런으로 4주 전 가격인 181.3센트/갤런 대비 15.0%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4.9% 상승했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3.11.25	2014.10.27	2014.11.24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198.7	181.3	208.5	4.9	15.0

주: 에탄올(CME선물)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4년 11월 마지막 주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11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4년 10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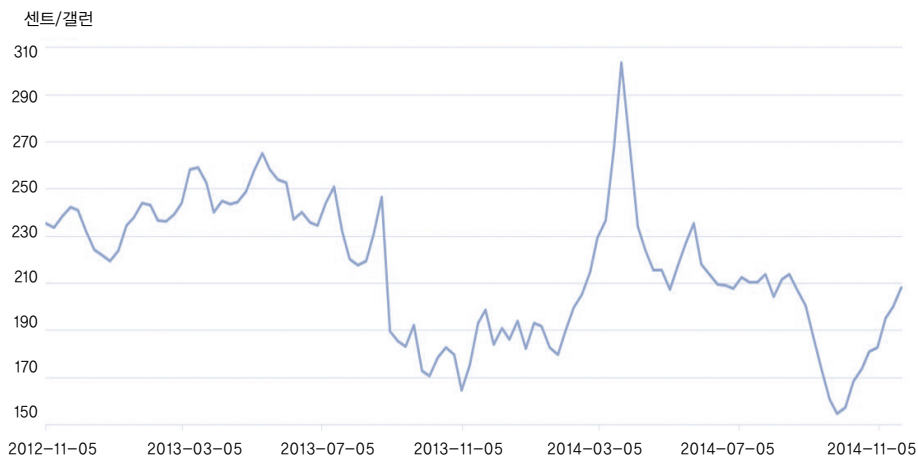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셀)
2014/8/29	921	17.7	9,480	13.97
2014/9/26	881	18.8	8,660	13.36
2014/10/31	929	17.2	9,162	14.09
2014/11/7	946	17.7	9,005	14.34
2014/11/14	970	17.3	9,194	14.71
2014/11/21	982	17.1	9,254	14.89
2014/11/28	962	17.3	9,425	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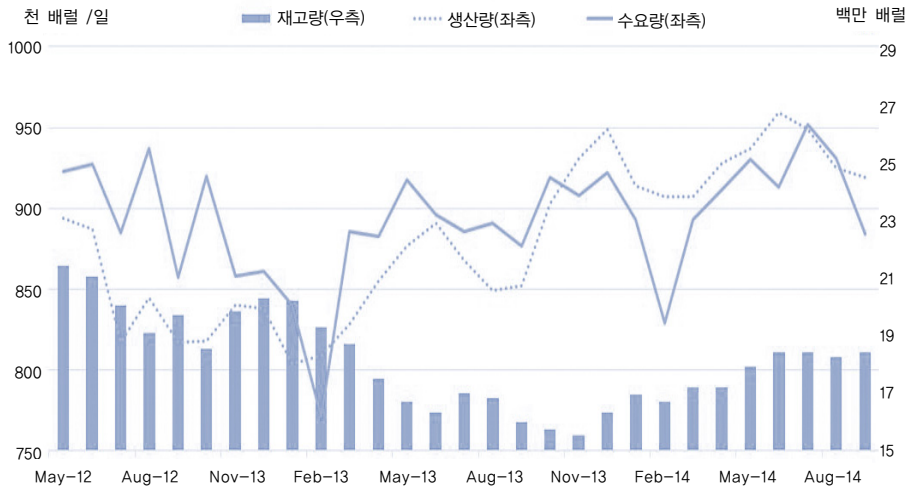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